

# “국가폭력 범죄자 ‘악의 정체’ 문학으로 부각시켜야”

전일빌딩245서 20일 오월문학제...임현영 소장 기조 발제  
5·18문학상 시상식, 시낭송, 시노래 공연 등 행사 다채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문학을 통해 국가폭력의 범죄자들이 지난 허위의 식과 그 형성 과정, 약탈한 생태구조를 대중화시키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인물을 등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20일(오 후 2시) 전일빌딩245(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되는 ‘2020오월문학제’ 심포지엄을 앞두고 미리 배포한 기조 발제문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증언의 문학에서 평화의 역사로-5월항쟁 문학의 진로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홀스트의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과 쿠투조프가 직접 등장하기에 더 친연히 빛나지 않는가”라며 “브레히트나 고골 같은 풍자적인 기법으로 악의 정체를 부각시키는 작업이 너무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방관자들 모두가 1980년 5월에 단독자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누구나 사연 많은 장구한 역사적인 시조와 종시조를 갖고 있음을 문학예술은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대 기록관장인 윤대석 서울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80년대 대학생의 5·18광주 기억하기-서울대 기록관 소장 학생운동 자료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윤 교수는 서울대가 광주항쟁의 현장에

부재했던 탓에 “쿠틀타를 막지 못해 광주 비극이 생겼다는 의식은 원죄의식이 되었고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를 돌려보거나 하며 광주항쟁에서의 저항과 희생을 기억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의 의지를 불태웠다”고 밝혔다.

서울대 기록관이 소장하는 자료는 학생들의 기억하기와 관련된 것만 있지 않고 기억을 저지하고 지우려했던 학교 당국의 기록 또한 다수 남아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휴교, 지도휴학·강제집중, 부모소환, 대책 회의 등으로 대응하였고 그에 관한 자료들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이러한 자료들은 부(負)의 유산에 해당하지만 그만큼 과거에 대한 반성의 재료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러한 부의 유산을 포함해 다수 자료를 기록관이 소장하게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임선웅 컬렉션(680건), 송기호 컬렉션(120건), 홍순민 컬렉션(175건)에 모아져 있다. 윤 교수는 후자 두 컬렉션은 역사학도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수집했다면, 전자의 것은 학생과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가 학생운동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학평론가인 홍기돈 가톨릭대 교수는 80년대 발표된 5월 광주 소재 작품들을 ‘과학으로서의 증언과 내면으로서의 환각’을 주제로 분석한다.



지난해 광주전남작가회의 주최로 열린 오월문학제 장면. <광주전남작가회의 제공>

홍 교수는 ‘과학으로서의 증언’은 당시 실상을 복원하는 한편 비극이 왜 발생했는지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깃발’, ‘십오방 이야기’가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가상현실이 실제계를 억압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 지점에 주목하는 방식인 ‘내면으로서의 환각’에는 ‘완전한 영혼’, ‘봄날’, ‘직선과 독가스’가 포함됐다고 주목했다.

심포지엄은 이동순 조선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료는 맹문재 안양대 교수와 정민구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후 4시부터는 올해의 5·18문학상 시상식이 열린다. 올해의 수상작(은주의 영화)의 작가인 공선욱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시상식에 이어 김태정 남송가와 주명숙 시인의 축하시 낭송, ‘듀오 꽃향’의 시노

래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5시부터는 전국 작가회의 회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월문학제 본 행사가 시작된다.

우동식 시인이 김준태 시인의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여는 시로 낭송하며 김은영 대구경북작가회의 회장, 강덕환 제주작가회의 회장의 연대사가 펼쳐진다. 이어 ‘단빛’의 시노래 공연, 강혜성·정종연·김명지·정수인·박관서·박세영·이철경·홍경희·이철산·박두규 시인의 시낭송, 가수 백자의 축하공연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으로 문학제 막이 내린다.

한편 오월 걸개시화는 오는 30일까지 국립 5·18민주묘지 일대와 민주열사 묘역에 걸려 전시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코로나 지친 시민들에 희망의 노래 전한다

에펠드뮤직 두번째 ‘뽕큐 콘서트’  
22일 광주시청 로비서 열려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공연에 이어 시민들을 위한 무대가 열린다.

(주)에펠드뮤직(대표 이현경·사진)이 ‘뽕큐콘서트’ 두번째 이야기를 22일 낮 12시20분 광주시청 로비에서 선보인다.

레퍼투리는 엘가 ‘사랑의 인사’, ‘6월의 어느 멋진 날에’, 루이스 폰시 ‘Despacito’ 등이다. 또 ‘백조’, ‘차르다시’, ‘마이웨이’, ‘유레이즈미업’ 등도 들려준다.

무대에는 첼리스트 박효은, 바리톤 김지욱, 피아니스트 이우정이 함께 올라 앙상블과 솔로 연주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기획한 이현경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시민들께 위로와 희망의 응원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고 싶어 마련했다”며 “음악인으로 사회에 동참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전남대 음악교육과와 성신여대 음악학 박사를 마친 이 대표는 프랑스 에펠도스



말 음악원을 수석 졸업하고 러시아 라흐마니노프 음악원에서 지휘를 공부했다. 음악인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해 만든 에펠도 뮤직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회취약계층 등에 클래식연주와 교육을 통한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음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채상장구·소고놀이...신명난 전통예술 즐기세요 ‘두드리’ 22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이하 두드리)가 공연 ‘두드리와 함께 전통예술로 신명나다!’를 22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두드리와 광주시, 광주문화재단이 함께하는 ‘2020문화예술진흥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모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오고무와 모듬북을 시작으로 사물놀이, 채상장구, 소고놀이, 부포놀이, 고깔설장구, 영광신정탈놀이(도투잡이 굿) 등을 선보인다. 또 다양한 진놀이 속에 맺고 푸는 뛰어난 변주 기교, 상모, 부포놀이 등을 펼치는 우도농악도 무대에 올린다.

선공전통예술원장 우지민이 사회를 맡았고 청소년 국악팀 풍물천지 아리솔, 최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가 22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연다. <두드리 제공>

연소 사물놀이팀 풍물천지 도담도담, 전남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보유자 김동연, 우도농악 광주지부 한사랑이 특별출연한다.

풍물천지 아리솔은 이날 무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 명인 김대균

의 지도로 줄타기를 조연한다. 공연은 두드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만날 수 있다.

다음 공연은 ‘이날치 김오재 예술혼 계승! 죽순골 작은 음악회 만민 한마당’으로 7월 5일 담양 우도 농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와 함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그레이그 ‘피아노 협주곡’ 등도 들려준다.

지휘는 정병휘가 맡았고 무대에는 피아노 류수빈·장호·장준, 첼로 문준상·유시우·김기범, 바이올린 와베미나·김현아, 클라리넷 황인혜 등이 오른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연에는 기악을 전공하는 청소년과 젊은 음악학도들이 출연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선보인다.

레퍼투리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클라리넷 협주곡’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첼로 협주곡’, 람프로의 ‘첼로 협주곡’ 등이다.

이와 함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

# 한여름 밤 무더위 날릴 ‘협주곡의 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21일 정기연주회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 75회 정기연주회 ‘협주곡의 밤’이 오는 21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공연에는 기악을 전공하는 청소년과 젊은 음악학도들이 출연해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선보인다.

레퍼투리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클라리넷 협주곡’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첼로 협주곡’, 람프로의 ‘첼로 협주곡’ 등이다.

이와 함께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

주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그레이그 ‘피아노 협주곡’ 등도 들려준다.

지휘는 정병휘가 맡았고 무대에는 피아노 류수빈·장호·장준, 첼로 문준상·유시우·김기범, 바이올린 와베미나·김현아, 클라리넷 황인혜 등이 오른다.

광주여성필은 단원 전체가 음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유일한 여성 오케스트라다. ‘광주여성체임버앙상블’에서 출발한 광주여성필은 1999년 5월 창단한 이후 지금까지 480여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금노상, 최선승, 카를로 발레스키 등 30여명의 지휘자와 피아니스트 김정원, 바이올리니스트 배은환 등이 협연자로 참여했다. 전석 조대. 문의 010-3625-511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p><b>뮤엠영어동림캠퍼스</b></p> <p>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엠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p>	<p><b>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b></p> <p>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 앞) 신전대방탕, 생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초창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p>	<p><b>(유)신 화 로 프</b></p> <p>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p>	<p><b>동 양 철 학 원</b></p> <p>동구 불로동 11-2(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p>
<p><b>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b></p> <p>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오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p>	<p><b>고 전 방</b></p> <p>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p>	<p><b>퀸 타로카드</b></p> <p>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 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p>	<p><b>신신 예술의 집</b></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p>
<p><b>장 어 수 산</b></p> <p>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경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배송·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부위 ☎ 062)412-1961, 010-5828-1961</p>	<p><b>미가한우명가</b></p> <p>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 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p>	<p><b>무크 광주세정점</b></p> <p>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2층 258호 회사한복 신상품 대량 입고 남·여 20~40%세일 (일부품목제외) ☎ 062)370-9258</p>	<p><b>한성꽃화원</b></p> <p>나주시 나루로71(송월동 LG화학 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관, 관엽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p>
<p><b>남 문 냉 동</b></p> <p>나주시 이창동 풍물시장2길 5-4 저온저장고제작수리, 영업용 냉장·냉동수리 에어컨 전문설치 ☎ 061)333-2779, 010-3610-2779</p>	<p><b>우리 뷔 페</b></p> <p>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p>	<p><b>개성전통한방삼계탕</b></p> <p>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p>	<p><b>천상일월태주명</b></p> <p>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p>
<p><b>만 福 당</b></p> <p>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p>	<p><b>자연모기발안병원헤어샵</b></p> <p>동구 롯데백화점 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넘어 개발 맞춤 전문! 중형기발을 자연모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p>	<p><b>석 당 화 랑</b></p> <p>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p>	<p><b>초 대 화 랑</b></p> <p>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p>
<p><b>대성각 중화반점</b></p> <p>동구 무등로306-6(구 시청뒤 도로변) 각종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전화주문시 신속배달 ☎ 062)430-5342</p>	<p><b>박 당 화 랑</b></p> <p>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한승 ☎ 062)222-6866</p>		